

안철수 “총선에 모든 것 걸겠다”

국민의당 공식 출범... 천정배 “정권교체로 국민에 희망”

총선 ‘一與多野’ 구도... 호남 민심에 야권의 성패 달려

국민의당이 2일 창당대회를 갖고 원내 제3당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일어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현실화했다. <관련기사 3면>

호남과 중도 진보 지향 유권자들을 전통적 지지층으로 둔 야권이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 총선에 임하는 것은 지난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더민주(더불어민주당)와 국민의당은 야권의 적자 자리를 놓고 정면승부를 펼치게 됐다. 특히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두 야당의 운명은 물론 야권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문재인 의원의 정치적 미래도 엿갈릴 예정인 가운데 호남 민심의 향배에 따라 야권의 승패가 결정 지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명·당헌당규·정강정책·국민회의와의 통합 등을 의결하고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총대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최고위원으로는 당원직 주승용 원내대표와 박주선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김한길 의원은 선대위원장에 선임됐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온몸이 부서져라 뛰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이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정치 혁명의 길을 시작한다. 국회를 바꾸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짜 정치로 보답하겠다”

“사람을 바꾸고 판을 바꾸는 혁명을 국민의당이 시작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제 모든 것을 바쳐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길을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혁명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재편되면서 총선에서의 진검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혁신을 기치로 공천, 지역, 정책을 둘러싼 무한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민심의 향배가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호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더민주와의 격차가 점차 좁아지고 있어 반전의 계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더민주 호남에서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분석 아래, 인제 영입과 혁신 공천을 고리로 막판 역전극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여부도 관심사다. 더민주에서는 ‘호남 경쟁, 수도권 연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야권연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남 민심이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선택적·부분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총선 직전 양당의 연대 및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후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 참상 최초로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 타계

“광주에 물어달라” 뜻 따라 손톱·머리카락 망월묘역 안장 “광주는 잊지 않습니다”



광주시, 조문단 파견

처럼 반복했다고 한다.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의 참상을 영상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씨의 신체 일부가 생전 그의 바람대로 광주 망월동 구 묘역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2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독일 언론인으로 80년 5월 광주를 기록한 힌츠페터씨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독일 북부의 라체부르크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5·18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특파원으로 광주의 상황을 현장 취재해 가장 먼저 세계에 알렸다. 그가 목숨을 걸고 계엄군에 짓밟힌 광주의 실상을 담아 보도한 영상은 군부독재의 폭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 1995년 기자회견에서 은퇴한 그는 2004년 5월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광주에 묻히게 해달라”는 말을 유언

“이러한 이유들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 꼭 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법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징적인 방법으로라도 묻히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광주에 애정을 보였다.

실제 그는 인터뷰 1주일 후 행사 참석차 광주를 방문해 자신의 손톱과 머리카락 일부를 봉투에 담아 5·18 기념재단에 맡겼다. 광주시는 오는 5일 독일에서 예정된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해 조의를 표시하고 고인이 남긴 손톱과 머리카락을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방공무원 광주 349명·전남 965명 채용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지방공무원 채용 시장이 선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2만186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26.25명, 15%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349명, 965명을 신규 채용한다. 광주의 경우 전년(226명)에 비해 54%가 증가했으며, 전남은 전년(1188명)에 비해 19%가 줄었다.

광주는 8·9급이 330명으로 가장 많고, 7급 7명, 연구지도직 12명을 뽑는다. 이중 사회복지 직렬(9급)은 62명이다. 장애인 구분 모집은 4명,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3명이다.

전남도는 8·9급이 842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지도직 74명, 7급 49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중 사회복지 직렬(9급)은

58명이며,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각각 7명과 5명이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광주와 전남 각각 4명씩을 선발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호응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시도별 채용 인원은 서울(3131명), 경기(3006명), 경남(1361명), 경북(1353명), 부산(1241명), 전남(965명), 대구(879명), 충북(843명) 순으로 많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선발인원은 이달 중 시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고법원장 유남석·광주지법원장 김광태

광주가정법원장 장재윤

대법, 고위 법관 107명 인사

광주고등법원장에 유남석(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지방법원장에 김광태(55·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광주가정법원장에는 장재윤(53·18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인사 명단 22면>

대법원은 2일 “대전고법원장에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07명의 인

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독일 본대학에서 수학했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의 김광태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전주고과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남석 고법원장 김광태 지법원장 장재윤 가정법원장

장재윤 신임 광주가정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0년 법관이 됐으며,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번 인사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이창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지

법 수석부장판사는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광주고법 부장판사에는 노경필 서울고법 판사, 박병철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구회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주현 광주지법원장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김재영 광주가정법원장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복귀한다. 서경환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최인규 군산지원장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김중호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박정욱기자 jwpark@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C 200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l (도시연비: 13.7km/l, 고속도로연비: 18.4km/l), 2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